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한국문인협회회원

분주히 산행에 오르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어느 누구도 살아가면서 젊음이 오...

노인과 원로

책은 훨씬 미치지 못한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이나 치매 등 질병에 시달리며 고독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 중에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눈치를 보거나, 소의 또는 고립된 상황에서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빈곤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은 없는 것일까.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일할 능력이 있고 그런 의지를 가진 이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현실성을 지닌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생활비용을 벌게 함으로써 각종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마련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청장년층 실업자가 늘고 있는 사정이나 그들의 일자리 마련에 적극적일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장자(莊子)에 춘(椿)이라는 나무가 나온다. 춘은 8000년을 봄으로 살고, 다시 8000년을 가을로 사는 나무이다.

社說

스마트폰 앱 더 많이 더 빨리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스마트폰 앱을 출시했다.

이웃종교의 경우 이미 100여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보급돼 있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앱 개발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문제라고 했다.

생각을,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자. 애플리케이션마다 개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불교계가 나서 포교용 개발 툴을 만들면 된다.

성보문화재, 불교계 소유 확실히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이 태고종 선암사의 성보문화재를 보관한 선암사 성보박물관 수장고 열람을 거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 않았는가.

올해는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의 해이다. 해인사 장경각의 팔만대장경을 보라. 대장경은 마땅한 미디어가 없던 시절,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원력으로 한 자, 한 자 새긴 결과이다.

호 공동대담을 반환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삼성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문화재단의 “금동대담은 1987년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적법하게 기증 받은 것으로 개대사에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부대중 칼럼



오심 스님 울산 월봉사 주지 중앙총회의원

새해가 밝았다. 음력 정월 초하루가 아직 멀어서 불가(佛家)에서는 새해인사 하기가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양력을 쓰는 사회 통념상 저마다 연하장이나 새해인사 한장이다.

지난해는 우리 불교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호기를 맞이한 중요한 해였다. 이명박 정권과 집권여당의 위정자들이 불교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불교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며 시대와 백성이 어려울 때 마다 종교의 본연은 뒤로 한 채 시대와 백성의 편에 서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서왔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오늘'

어쩌면 잘못된 일이다. 우리 불교가 언제부터 정권의 눈치나 보고 살아왔는가? 조사스님들이 피땀으로 불법을 계승하고 전통을 지키고 아름다운 산악을 목숨처럼 보존해 오셨는지 모르겠다.

중국의 장강이 아름답고 웅장한 것은 뒷물의 도도함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만들어진다. 역사는 정이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는 아름다운 민족이다.

중국의 장강이 아름답고 웅장한 것은 뒷물의 도도함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만들어진다. 역사는 정이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는 아름다운 민족이다.

즐겁게 준비한다. 우리는 현재 작은 것에서 다름과 이견으로 절절된 삶을 살아가는 약소민족으로 평가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작은 이기주의에 편승하고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타종교의 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어리석음에 분노한다.

종교는 신성해야하고 종교인은 정의롭고 자비스러워야하며 이웃종교를 존중할 줄 알아야한다. 종교인은 신도들을 정의롭게 이끌어야하고 배려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야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진정한 종교인일 것이다.

작금의 위정자들과 그릇된 일부 개신교인들의 행태는 아무리 마음을 열어 놓고 바라보고 백번 양보해서 바라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백암곡〉에 이르길,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이 생애에서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 누구에게든 하루는 24시간만 주어진다. 주어진 시간 안에 꼭 무엇인가를 이룩해야겠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월이 약이지요”하며 마냥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 현재 실현 가능한 것들을 계획성 있게 실행으로 옮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후세의 불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남겨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내일이 있다. 그 내일은 오늘을 무사히 보내야만 온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까닭일 것이다.

우리 불교의 홀로서기가 용두사미처럼 되지 말기를 희망하고 또 희망해 본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2011년 드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웅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